

일본 여행을 통해 본 한국인의 대일관

- 일본 여행 애호가를 중심으로¹⁾ -

송광은 (한국외국어대학교) 2)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방일 경험이 일본 여행을 애호하는 한국인의 대일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을 둔다. 일본 여행을 연구 주제로 선택한 이유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간접적이고 일방적으로 소비되는 일본 대중문화와 달리 여행은 직접적으로 일본을 체험할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쌍방향적인 교류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결을 달리한다. 두 번째, 흥미와 애정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방일하는 집단인 일본 여행 애호가들을 통해 일본 여행의 의미를 풍부하게 읽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 여행 애호가 16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 여행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³⁾ 더불어 온라인 커뮤니티 관찰을 연구 보조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는데, 이는 인터넷 자료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보다 일본 여행 담론을 살펴봄으로써 대상을 폭넓게 이해하고자 함이다(조영한, 2012).⁴⁾

본 연구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 정책 이후 한국인들이 일본 대중문화를 소비해왔으며, 20년이 지난 지금 여행이라는 미증유의 방식을 통해 일본을 직접적으로 체험한다는 시각에서 일본 여행을 다룬다. 이 같은 관점에서 선행연구로서 일본 대중문화 수용자 연구들을 살펴 보았다. 선행연구들이 간접적인 일본 소비 연구라는 점에서 차이를 지니지만 일본 대중문화 수용자의 대일관은 일본 여행 애호가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본 대중문화 수용자들은 대중문화와 일본을 분리하는 경향을 보인다(김현미, 2003; 윤경원, 나미수, 2005a; 三村 光平, 2012). 이는 과거에는 일본을 하나로 보는 “총체화”적인 반일 기조가 우세한 것과 달리, 일본 대중문화 개방으로 양국의 교류가 일상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90년대 이후 인터넷 공간 속에서 다양한 국적의 문화를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즐기는 “개별화” 경향이 증가했다는 이지원(2012)의 주장과 결을 같이한다.

이에 따르면 일본과의 접점이 점차 다양해지는 오늘날 한국인의 개별화 인식은 보다 뚜렷해지는 경향을 띠는 것이다. 한편으로 기술 발전은 앞으로 문화 상품 및 미디어의 굴절을 거치지 않은 직접적인 접촉도 증가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매개가 없는 만남, 일본을 누비며 관찰하고 교류하는 여행은 개별화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이곳

1) 본 논문은 송광은(2019)의 석사학위 논문 『일본 여행과 일본 인식』을 재구성했다. 인용은 큰따옴표, 강조는 작은따옴표로 표시하였다.

2) 국제지역대학원 한국학과 석사. 이메일: dgs00000@gmail.com

3) 인터뷰 참여자인 일본 여행 애호가(愛好家)는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를 따르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세 이후 자유 일본 여행 경험자이다. 참여자 절반 이상이 20세 이전 방일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가족 혹은 수학여행과 같은 수동적인 여행이었으며 그에 따라 단편적인 기억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능동적 여행자 집단 구분은 필수적이다. 두 번째, 5회 이상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여러 번 방일을 시도할수록 다채로운 경험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의 전국일주 여행자가 더욱 많은 것을 체험하였을 수도 있다. 또한 일정한 자금과 시간을 요구하는 여행의 특성상 직업과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무작정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5회를 최소한의 기준점으로 삼았다. 세 번째, 향후에도 방일 의향이 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반복된 여행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본행 비행기 티켓을 검색한다. 실제로 참여자 중 일부는 일본 여행을 다녀온 직후 인터뷰를 갖거나 인터뷰 이후 여행을 떠나기도 하였다.

4) Kozinets(2010)의 사이트 선정 기준에 따라 일본 여행 커뮤니티 중 최대 규모인 카페 <네이버 일본 여행 동호회> 에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 15일까지 매일 1시간 정도 조망적 관찰을 시행했다.

에서 출발하며, 일반 한국인 여행자와 결을 달리하는 일본 여행 애호가들의 경험을 통해 일본 여행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일종의 팬덤으로 볼 수 있는 일본 여행 애호가들도 개별화 인식 속에서 일본을 여행하는가? 혹은 구분되는 또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직접적인 접촉이 인식 변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경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본 여행 애호가들이 어떤 형태의 여행을 그려내는지 살펴보기보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일본을 재인식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일본 여행을 분석한다.

2. 대일관

2.1 개별화 인식

전반적인 한국인의 대일관은 “반일과 친일, 반발과 이끌림, 적의와 경의가 교차하는 양면성 ambivalence”(정대균, 2000), 즉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공존”하는 특징을 지닌다(박상현, 2010). 마찬가지로 일본 여행 애호가들에게서도 일본 상품, 대중문화에 따른 친일과 양국의 정치, 역사 문제와 얽힌 반일은 ‘동시적’으로 관찰된다. 한국사회에서 자란 이상 상반된 일본의 모습들은 중첩을 이루면서도 특성에 따라 분류되며 궁극적으로 개별화되어 인지된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다수의 참여자에게 있어 일본 여행과 일본은 “별개의 문제”로 치부된다. 또한 “여행을 다니더라도 경계해야 할 것은 경계”, “물들거나 동조하거나 것에 대해서 자제” 한다는 말에서 개별화 인식이 한국인의 정체성과 공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개별화 인식은 일본 여행에서 개별화 실천으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야스쿠니 신사 방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과 같이 여행 중 우익 관련 상품과 장소를 불매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여행자는 ‘예상치 못한 여행과 역사의 접점’에서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낀다. 방문한 신사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칼을 보았거나 예약한 호텔이 우익 기업의 소유임을 알게 되었을 때의 당혹감. “약탈”을 당한 “우리나라” 유물을 본 순간 튀어나오는 욕. 한국인의 “강제 징용”은 삭제된 채 “위대한 유산”으로만 그려진 군함도 투어 경험. “객관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원폭이 터져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에서는 반일 감정을 경험한다. 일본인에게 있어 교과서의 내용을 실습할 수 있는 박물관은(김상준, 2005), 한국인에게 있어 역사 왜곡을 목격할 수 있는 현장이며 이 장소에서 상반된 양국의 기억은 충돌한다.

주목할 점은 여행과 역사의 ‘교차’를 체험한 참여자들의 경험이 기존의 개별화 인식과 달리 일본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음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펜 <하이테크>의 제조 회사가 우익 계열의 미쓰비시와 회사명만 다를 뿐 다른 회사임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펜을 계속해서 사용했다는 참여자들의 경험도 일본 상품과 우익 기업의 결부 가능성 및 개별화 실천을 보여준다. 종합하자면, 기존의 개별화 인식과 달리 일본의 상품/문화는 역사/정치와 분리되지 않는 상호복합적인 관계를 지닌다. 이에 대해 (A)씨는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서도 은연중에 두 개를 엮어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합리화’를 통해 ‘어떻게든 분리’해보려고 했던 것 같다”며 개별화 시도에 의문을 던진다. 그러나 개별화를 의심하는 참여자는 (A)씨뿐만이 아니며, 다음 장에서 개별화 인식과 다른 대일관을 지닌 참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한다.

2.2 변증적 인식

몇몇 참여자들은 자신의 일본 방문을 지적하는 동시에 일본을 소비하는 한국인의 모습에 의문을 가지며, 이와 같은 개별화 인식이 “무의식”에서 기인한다고 말한다. (L)씨는 한국인

에게서 일본의 문화와 역사가 접하지 않은 부분을 소비할 때 “이거(문화)는 나쁜 게 아닌데”라는 생각과 함께 개별화 인식이 시작되며, 자신은 “객관적이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본인만의 개별화 인식에 관한 소고를 들려준다. (Q)씨는 일본 여행을 반대하시는 부모님이 사다드린 기념품에 대해서 일제가 최고라는 말을 할 때 “인간은 모순의 동물”이라는 생각을 떠올린다. (H)씨는 일본이라는 단어만 언급해도 반일 감정을 내비치는 한국인의 많은 수가 일본을 방문했다는 사실에 이질감을 느꼈다며, 미국 문화는 거침없이 소비하면서 “왜 일본 문화만큼”은 거절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⁵⁾

페터 V. 지마(1996)에 따르면 개별화 인식을 가진 참여자들은 양가적, 일본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들은 변증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전자는 친일과 반일이라는 두 개의 인식이 나뉘어 존재하지만 후자는 일본을 보다 복잡다단한 존재로 바라본다. 또한 그는 “사회적, 역사적 조건에 제약받은 우연적 구성물”임을 직시하는 자기반성적 태도가 전제될 때, 달리 말하자면 한국의 특수성을 내세우기보다 의문을 제기하며 한 걸음 물러서 성찰의 기회를 가질 때 양극단의 이야기가 결합됨으로써 진정한 변증적 대화가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H)씨와 (O)씨에게서 그가 언급한 자기반성적 모습이 관찰되는데, (H)씨는 여행 중 자이니치 코리안 세 사람을 조우함으로써 성찰의 기회를 가졌다. 이후 이들에 대해 공부한 (H)씨는 과거 청산만을 주장하기 전에 전 세계에 위치한 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음을 이야기한다. (O)씨는 과거 일본의 침략에 대해 일본이 본질적으로 악하기보다 모두가 보편적으로 악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군 베트남 전쟁 파병을 그 예로 든다. 이들은 모순에만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모순을 생각함으로써 모순을 지양한다는 마슈레(1979)의 말처럼 한국의 특수성에 매몰되지 않은 채 자기반성을 행한다(페터 V. 지마, 앞의 책에서 재인용).

변증적 인식 참여자들은 한 차례의 여행이 기존 대일관 균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한편 모든 일본 여행 애호가들이 변증적 인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루어 보건대, 대일관의 변화는 반복되는 여행을 통해 사유의 기회를 제공받는 여행자가 주체적으로 일본을 부단히 사색함에 따라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산티아고 순례자들의 순례 이후 변화를 추적한 인류학자 낸시 프레이(2018)의 문장이 겹쳐진다. “어떤 식으로든 변하려면 순례자 본인이 그 문을 통과해야 한다. 순례가 자동적으로 어떤 사람을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지는 않는다.”⁶⁾

3. 일본인

여행이라는 직접적인 체험은 일본의 일상을 포함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이미지를 제공한다. 그 중 일본인은 여행자와 상호 교류를 맺는 존재이며, 참여자들에게 있어 “회색”의 일본은 마주친 일본인들에 의해 덧칠되어진다. 그러나 일본인의 이미지가 일본으로 확산되듯, 역으로 일본의 이미지가 일본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국가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인과 일본인은 한일관계사로 인해 불완전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참여자들은 연령과 관계없이 양국의 과거 식민지-피식민지의 관계가 중추를 이루는 집단 기억을 공유하는데, 이는 식민지 경험이 없더라도 국가 이념으로 채택된 반일주

5) 박상현(2010)은 미국화에 대한 비판은 실종된 채 일본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만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일본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가 강력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6) 변증적 인식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인터뷰 참여자 (O)씨와 (Q)씨는 여행 이전 일본 문화에 일질 관심이 없었으며, 한국 사회에서 일본 여행이 유행하던 시기 주변의 권유로 인해 처음 일본을 방문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여행이 대일관 변화의 트리거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의가 한국인의 사고나 감정, 행동양식에 정착되었다는 정대균의 주장으로 설명된다(고하리 스스무, 2001). 결국, 한일 관계는 “정치와 역사는 배제”된 채 유지된다.

하지만 친구는 완전한 타인이 아니다. 이 관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다시 한 번 서로의 속내를 꺼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본인과 대화를 나눈 참여자들은 역사교과서의 서술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 물음의 끝은 역사교과서의 정치화와 맞닿아 있다.⁷⁾ 또한 이들은 “배웠던 역사를 다른 이면에서” 보게 하는 경험들을 통해 호명된 국민에서 이탈할 추동력을 얻는다. 가령,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비교를 통해 역사 서술이 다름을 발견하였거나 일본 관광지의 영어 설명문에서도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깨달은 경험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역사를 뒤집어보는 여행자는 “절대 악”으로 묘사되던 일본을 재정의해 본다. 역사교과서의 정치화를 깨달은 여행자는 일본 정부의 국민 만들기 전략도 간파한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일본인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기보다 이해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유민호(2016)는 일본에게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반일 감정이 그동안 한국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만병통치약”이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만병통치약은 미디어와 역사교과서 같은 내부의 모순과 문제점을 고찰하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하지만 일본 여행 애호가는 집단의 논리에서 벗어난 주체가 되어 일본인과 양국의 문제에 대해 대화를 시도한다. 의견 충돌은 상대방이 타인이 아닌 친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자신을 성찰하고 차이의 근원을 탐색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이들은 서로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 여행은 양국의 쌍방향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의 국경넘기이다.

4. 맺음말

본 연구에 따르면 개별화 인식을 가진 일본 여행 애호가도 존재하지만, 일본을 나눠 보지 않는 참여자들도 관찰된다. 이들의 목소리를 빌림으로써 일본 여행이 대일관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증거로 일본을 복잡다단하게 바라보는 변증적 인식을 포착했다. 또한 여행 중 인연을 맺은 일본인과 한일관계사에 대해 의견을 나눔으로써 국가의 논리에서 벗어나 일본을 재정의하는 주체자로서의 변모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변증적 인식을 가진 혹은 일본인과 대화를 시도하는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일본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이는 인터넷과 같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창구의 증가, 과거 한국사회에 팽배했던 반일 이데올로기가 다소 견히고 있는 오늘날 시대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포스트 팬 연구의 시도로 인해 공통된 집단임에도 대일관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좀 더 균질적인 참여자들을 모집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는 한국사회에서 비가시화 된 존재를 드러내는 적절한 방법이기도 하다. 설명하자면, 한국에서 일본에 대한 논장(論場)은 이분법적으로 반일과 친일의 구도로 구성됨으로써 주체적인 사고의 가능성과 장소를 부재시켜 왔다.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쌓아두었던 일본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해소 혹은 배출하는 참여자들의 모습도 그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새로운 인식을 찾고자 하는 작업은 구조의 언저리에서 침묵해오던 과편적인 목소리를 통해서 가능성을 얻는 것 아닐까?

7) 뿐만 아니라 교사의 관점과 지식도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정식적인 일본사 교수 경험이 없는 교사들은 지식이 부재한 공간을 자신의 반일 감정으로 메우게 된다(허신혜, 2010).